



공간에 서다

발견자 김세종

공간에 정지, 공간에 엉기다, 그대로 화내다.

나는 존재하는가? 모든 가닥은 머리카락, 침이 되어 반석이 되다.
그리고 그가 그은 움직임, 그리고 그 변화에 화가 붙다. 그림그리라,
모습은 나의 똥에 무게를 감기고, 나의 발에 기대를 품어,
가닥을 숫자에 남긴다. 아, 자세있다.

가자, 온 곳을 가는가? 나는 침이 되어 잊으리. 가나, 녹은 바닥에 갈
고리 파랑새를 찾아, 과거의 여인을 찾아 그리고 가는가? 이가 서넛,
둘이 하나를 지탱해 한을 나라에 바치려는가? 정지하라, 그러면 그들
이 떠들까? 하늘은 가려져 가닥을 풀어 보리라. 그리고, 가도 그가 아
는 가닥을 나는 넋을 놓아 침마저 흐르는가? 지고 말면 녹는다. 가자,
하늘로, 시원한 바닥은 하늘을 향해 신호를 보내고 나는 본것으로 나
래를 펴고 질서를 찾은 몸은 정지하는가? 나는 보되 가늘어 공간은 편
안한 침대다. 이제 가닥을 풀어 보리라. 그것이 그가 온다. 그가 과거
인가? 미래인가? 모르니 더듬는다.